

# 광주은행 '우량자산 늘려 수익성 확보' 혁신경영 나선다

### 고병일 행장,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스테이크플레이션 대비책 논의 금융 서비스 확대·재무건전성 제고... 中企 특별 대출 등 상생 도모

광주은행이 올 하반기 건전성 관리 고도화와 성장성 강화, 안정적인 수익성 관리,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혁신경영에 돌입한다. 내부적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서비스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역에서의 신뢰회복도 꾀한다. 광주은행은 18일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올 한해 세 차례 하향 조정된 국내 경제성장률, 저성장·고물가 국면의 스테이크플레이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들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강한 기초체력을 밑바닥에 둔 생존전략으로 우량자산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로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금융시장에서 혁신 및 건전성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은행장은 양질의 서비스 및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로 고객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공공적 역할 적극 수행을 통한 지역에서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혁신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은행은 세부 실천 전략으로 ▲건전성 관리 고도화 ▲성장성 강화 ▲안정적인 수익성 관리 ▲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혁신경영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고 은행장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 강화 시켜나가기만 한다"면서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부적 역량'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광주은행은 내부적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토스 공동대출,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인수금융 확대, FX 트레이딩 개시, 외환 선물환거래 재개, JBSV 브로커리지 서비스 개시 등 금융서비스 영역을 다방면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날이 고도화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의 금융편익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시의적절한 상품을 출시, 예고되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과를 낼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대출' 50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이자부담과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판매한도와 감면금리 확대 시행을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목적으로 연말까지 총 450억원 한도로 'KJB사회활성화대출' 신규 취급 금리 1%포인트

인하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편성 등 발빠른 금융지원으로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광주은행에 방문해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당행은 상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225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해 바 있다.

지원내용은 ▲햇살론뱅크 3000억원 ▲주택담보대출 1500억원 ▲최저신용자 지원 1000억원 ▲새희망플러스 45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특별자금지원 5500억원 ▲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800억원 자금지원 등이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초 광주은행은 데이터분석 역량과 자산관리 사업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데이터본부와 자산관리본부를 신설, 최근에는 체계적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점 최초로 본선금융센터 WM라운지를 신설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고 행장은 "날로 성장하는 비대면 개인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시장에 진입하면서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통한 지역·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및 서비스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고병일 은행장이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세계는 장마철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숙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써머 꿀잠 페어전'을 23일까지 진행한다.

## 장마·열대야에도 꿀잠 쿨쿨~

### 광주신세계, 23일까지 '써머 페어전' 침대·베개 등 할인 구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여름 장마철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숙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써머 꿀잠 페어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열대야에 잠들기 힘든 고객들에게 숙면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 수면 컨설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꿀잠 페어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

사 특징은 체험형 콘텐츠로, 숙면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편안한 잠자리에 필수적인 침대, 매트리스, 베개 등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체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행사장에 조성했다.

또 지역 향토 브랜드로 전통 한식 침구세트 생산 업체인 '윤현궁'은 차림이불과 패드, 베개 등을 50

~70% 할인한다. 이밖에 '시몬스'는 블랙라벨 매트리스 전품목을 기존 할인된 가격에서 추가 5% 할인하고, 매트리스도 8~25% 할인한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를 바로잡고 올바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수기법을 응용한 기능성 베개를 선보이는 브랜드 '가누다'에서도 베개 20%, 냅-케어유 최대 30%, 냉감 패드 50% 등 할인에 나선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장맛속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잠을 설치 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열대야 시즌에 맞춰 올해 처음 수면용품 행사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신재생에너지 편중' 전력기금 재편

### 산업부 "전력망 확충·원전 강화"... 한전공대 지원비 감소 가능성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도 보다 강화해 운용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준조세적이다. 이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력기금의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 4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에는 절반가량인 1조3486억7000만원(50.2%)이 사용됐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녹색

혁신금융(용자·출연) 등 태양광 발전 용자 사업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에는 한국에너지공단(한전공대) 사업 지원비 250억원도 포함됐다.

한전공대 운영상 비리·비위 의혹과 개교 적법성 등 논란을 둘러싸고 역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는 올해보다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와 보급 비율이 커지는 데 비해 이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올해 들어 출력제어가 빈번해졌다.

산업부는 송·배전망 확충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 신산업 분야 일자리 현안 발굴

### 광주상의,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애로사항을 청취,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일자리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인트리, ㈜나무기술, ㈜다공에스앤티, ㈜솔트룩스노노베이션, 에코피스㈜

등 주요 산업계 대표 및 임원들이 참여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대응 상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수급 관련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오늘 호남 예선

### 광주전남본부서 대학 6개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본부 1층 강당에서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호남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해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 호남 예선에 참가하는 참가팀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소재 대학 6개 팀이다. 세부적으로는 목포대 '매물기의 물가단속', 원광대 '데미안', 전남대 '두근두근 금리시그널', 전북대 '황금리울', 제주대 '금삼', 조선대 'BOX티머스' 등이다. 지역예선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또 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50만원 등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은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된 전국결선 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7.62 (-11.38)
↑ 코스닥	914.14 (+15.85)
↓ 금리(국고채 3년)	3.596 (-0.015)
↓ 환율(USD)	1260.40 (-6.20)

## 청년층, 취업보다 대학원 진학 선호

### 취준생 2년째 감소... 청년 3명중 2명 근로여건 불만족에 퇴사

공무원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

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다.

통계청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당시 학교에 다녀 취업 준비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위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보다는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더 나타났다. 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18만6000명으로 2만4000명 줄었다.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공무원 준비 비중도 29.9%에서 29.3%로 하락했다.

반면 일반기업체 준비하는 청년은 16만8000명(23.8%)에서 17만3000명(27.3%)으로 늘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가운데 아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65.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이직 경험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9%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64.4%였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의미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200만원 미만 비중은 3.5%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첫 일자리가 숙박 및 음식점업(15.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